

# 6·25전쟁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적 표현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on Monumental Expression of Korean War Memorials in Korea

Lee, Sang-Su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onumental expression of Korean War Memorials(KWM) in Korea(KWMMK). Through site survey and internet searching, the researcher selected 17 KWMMK and analyzed four analysis categories: contents, spatial form, landscape elements, sculptures and architectural el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analysis revealed that main contents of KWMMK were to cherish victims of the Korean War, honor military merit, and explain Korean War.
2. Most KWMMK built battlefield had the form of symmetry and spatial axis arranged monuments and sculptures for solemnity and heroism. Though the sites were terraced by traditional spatial order, spatial sequence wasn't seen except Yang-gu KWMMK and Chumomyeongbi in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3. Stone monument-like towers, tablets, podium, monoliths, cenotaphs, and exhibit halls to explain Korean War and combat history were used as main elements of KWMMK and also, war weapons were often displayed the flags of countries taking part in Korean War were raised with Taegueugi and the United Nations flag.
4. Most sculptures were used as important media to represent the Korean War and assumed realistically the form of heroic combat. But a few architectural memorial built in recent were designed in contemporary style to have spatial sequence and represent Korean War symbolically and narratively.
5. In memorial culture, KWMMK were strongly influenced by ideology and patriotism, impacted by conventional value, and designed by some sculptors and designers in a certain circle.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WMMK in the point of design style and diachronic.

*Key Words : War Memorial, Memorial, Memorial facilities, Landscape Details, Monuments*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는 6·25전쟁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적 표현을 분석하는 것으로 기념공간에서 구현되는 기념의 내용, 공간적 특성, 도입요소, 조각 및 건축물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6·25전쟁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문화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에 있는 6·25전쟁과 관련된 현충시설 659개를 1차 검색하여 부지가 전적지이거나 전쟁과 관련된 장소성이 있으며, 외부공간이 조성된 17개소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계도면, 사진, 기사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Corresponding Author : Lee, Sang-Su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Phone : +82-2-2210-5775, E-mail: sanglee@uos.ac.kr

1. 기념내용에 있어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공을 기리며, 6·25전쟁의 경험 및 교육을 통하여 호국정신을 고양하는데 초점이 두어졌으며, 특히 전적지에 위치한 기념공간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부지의 입지여건과 전통적 공간인식에 따른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였으며, 기념공간에서 요구되는 엄숙함을 얻기 위해 축적인 구성을 하고, 추모감과 전승감을 얻기 위해 중심축 상단에 기념탑이나 전시관과 같은 상징적 요소를 위치시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3.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공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와 기념탑, 전쟁의 경험 및 교육을 통해 호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기념전시관 및 야외무기전시장, 그리고 참전국가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국기가 주요한 요소로 도입되었다.
  4. 영웅적인 전투장면을 묘사한 근대적 조각이 많았으나 양구전쟁기념관 및 유엔기념공원의 ‘추모명비’에서는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현대적 기념공간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5. 기념문화에 있어서도 애국주의 및 이데올로기가 강조되고, 기념공간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으며, 일부의 조각가 및 설계가만 기념공간의 설계에 참여하였다.
- 향후 6·25전쟁 기념공간에 관한 미니멀리즘, 해체주의, 탈근대주의 등의 설계양식론 관점과 다른 전쟁메모리얼과 비교를 통한 통시적 관점(通時的 觀點)의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전쟁메모리얼, 메모리얼, 현충시설, 조경디테일, 모뉴먼트

## I. 서론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국군 15만 7천 명, 유엔군 5만 9천 명, 경찰 1만 명 등이 전사 및 실종되고, 민간인 24만 5천 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밖에도 수많은 부상자와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국방군사연구소, 1996: 33, 67, 80, 110). 이 전쟁은 국민뿐만 아니라 참전용사, 그들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상처가 되어 왔다. 이로 인해 6·25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우리나라 도처에 전적비, 전승비, 기념탑, 기념관 등이 조성되어 왔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참전기념탑이나 기념공원이 계속하여 조성되고 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사건 및 전쟁을 기억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모뉴먼트(monument)와 메모리얼(memorial)<sup>1)</sup>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념물, 기념비, 기념문, 기념상, 기념탑, 기념관 등으로 나타나는 모뉴먼트는 지금의 도시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와 트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근대 이전의 공공장소에서 압도적인 규모의 기념물로서 상당히 효과적이었지만(김정운, 2004: 130), 도시가 고밀화되고 설계양식이 발전하면서 공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갖는 기념공간으로서 메모리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전쟁과 메모리얼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쟁메모리얼은 기억의 저류지로서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명과 정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곳으로,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희생자의 영혼을 치유하고 명예를 고양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일수록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수많은 메모리얼에 표현되었다(이상석, 2009: 143). 이와 같이 개인적 희생을 추모하면서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메모리얼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전쟁메모리얼에 대한 담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규모에 상관없이 그 형태, 기능, 의미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Yoshimura, 1997: 1).

6·25전쟁이 발발한 후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기념공간의 주제로서 6·25전쟁은 다양한 시각으로 보일 수 있으며, 기념공간에 나타나는 기념문화 역시 국가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는 6·25전쟁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적 표현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념의 내용, 공간적 특성, 도입요소, 조각 및 건축물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6·25전쟁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문화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적 표현을 이해하고 기념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범위

우리나라에 있는 6·25전쟁 기념공간은 종합기념관, 현충탑, 충혼탑, 기념물 등으로 다양하며(유호상과 송영환, 2008: 42), 법적 근거에 의해 ‘현충시설(顯忠施設)’로서 정의되어 설치, 관리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충시설을 독립운동 관련 시설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에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충시설로서 국가수호 관련 시설을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전공비·추모비·현충탑·위령탑 그 밖의 비석 및 탑,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상징물,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상징물,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전시관,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충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보면 현충시설로서 국가수호시설을 6·25전쟁<sup>2)</sup>, 월남전쟁, 기타로 구분하고, 시설별로는 사당, 장소, 조형물, 생가, 기념관, 동상, 탑, 비석, 기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6·25전쟁과 관련되어 현충시설로 지정된 것은 2010년 2월 기준으로 유형별로는 비석 396개, 탑 211개, 동상 19개, 기념관 14개소, 사당 3개소 등으로 전체 659개이다(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서비스 <http://narasarang.mpva.go.kr/hyunchung/mfis/facility.asp>). 이 중에서 비석과 탑이 607개(9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 108개, 경기 94개, 경북 72개, 전북 72개, 충북 67개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격전지가 많았던 강원 및 경기도에 많이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이와 같이 한국에는 6·25전쟁과 관련된 많은 현충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비(碑)나 탑(塔), 동상(銅像) 위주로 단순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 전체를 검색하여 단순히 비석, 탑, 동상으로 만들어져 분석의 가치가 낮은 시설을 제외하고, 부지가 전적지이거나 전쟁과 관련된 장소성이 있으며, 외부공간을 포함하는 기념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현충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경의 측면에서 분석가치가 높은 미국군참전기념비와 양구전쟁기념관을 추가하여 전

체 17개의 6·25전쟁 기념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방법

6·25전쟁 기념공간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서비스에 제시된 6·25전쟁 현충시설 자료와 관련문헌을 토대로 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분석 및 고찰을 위해 연구대상 기념공간에 대한 도면, 사진,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각의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내용, 공간적 특성, 도입요소, 조각 및 건축물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기념문화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기념의 내용은 전쟁메모리얼의 주체로서 국가, 사회,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이상석, 2005: 209). 기념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설계가나 비평가들이 언급해 왔지만, 메모리얼은 추모, 회고와 치유, 의식, 집단적인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서 지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영혼을 위로하고, 공동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Wasserman, 1998: 42). 즉, 기념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죽음의 추모, 과거의 회상, 사건에 대한 사회적 환기 및 치유, 그리고 명예 고양의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개인·사회·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이상석, 2001: 73). 따라서 전쟁메모리얼로서 공공성을 갖는 6·25전쟁 기념공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기념내용으로 희생자 추모, 전쟁의 경험 및 교훈, 전승과 호국정신, 전쟁의 의미와 감정, 집단의 정체성 및 헌신, 전쟁의 사실적·상징적 표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공간적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지의 환경요소인 입지적 특성을 분석하고, 기념공간의 형태로서 정형과 부정형, 축과 대칭 등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건과 사건이 이어져 이야기가 되고 개체적 요소나 작은 공간이 구성되어 전체를 구성한다(Potteiger and Purinton 1998: 110)는 점에서 기념공간

표 1. 6·25전쟁 현충시설의 유형별·지역별 현황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계
사당			1	1	1												3
장소					1				1			1					3
조형물		1	1						1							1	4
생가																	0
기념관	1		1		5			3	1		1			2			14
동상	2	2	2		2	1	1	2	1	3	1			1		1	19
탑	3	25	17	10	27	30	33	20	26	5	7		3	2	2	1	211
비석	8	65	44	9	71	41	27	45	33	20	8	3	2	6	3	11	396
기타		1	1		1		1	2	2							1	9
계	14	94	67	20	108	72	62	72	65	28	17	4	5	11	5	15	659

자료: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서비스, 2010, 필자 제작성

에 위치한 다양한 요소가 공간적 형태와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어 기념의 내용을 전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메모리얼에 사용되는 도입요소는 건축물, 기념벽, 수목, 연못, 폭포, 조명, 기념식물, 야생동식물, 역사적인 물건 등으로(Jorgensen, 1998: 42), 시대에 따라 달라져 양식을 대표하기도 하며, 다양한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근대 메모리얼에는 아치, 다리, 기둥, 불, 못, 깃발, 문, 메달, 기념비, 동상, 인물조각, 명판, 타워, 성당 및 교회, 건물과 같은 기념물이 도입되었으나(The commission of fine arts, 1946: 17), 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메모리얼, 베트남전쟁 메모리얼, 한국전쟁 메모리얼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한 조형물보다는 조경설계를 통하여 상징적인 디테일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도입요소는 단순히 기념공간을 구성하는 실체만이 아니라 기념공간의 양식을 결정하고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분석에서는 도입요소의 종류 및 형태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기념공간의 구성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모뉴먼트로서 기념성이 강한 조각 및 건축물을 분석하였다. 6·25전쟁 기념공간에서도 다양한 조각과 건축구조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기념의 내용

6·25전쟁 기념공간에서는 전쟁에 관한 설명 및 전시, 희생자 추모, 참전국 명예고양, 호국정신 고양 등이 주요한 기념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통하여 6·25전쟁을 알리고, 전적지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실내 및 옥외에 무기전시를 하여 전쟁의 경험을 강조하거나 전투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조각을 이용하여 호국정신을 고양하고, 전적비를 세워 전공을 기렸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기념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전적지에 조성된 전적기념관인 다부동전적기념관, 왜관지구전적기념관, 백마고지전적기념관, 춘천지구전적기념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쟁기념공간의 주요한 건립목적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위령비, 추모비, 기념탑, 기념비 등을 도입하고, 그들의 업적을 고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기념공간을 만들면서 탑이나 비 등에 의존하는 단편적이며 획일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며, 별다른 고민 없이 애국주의적인 설계안을 채택하고, 전쟁의 승리감을 묘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종합기념관으로 유물전시 및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를 대표하는 전쟁메모리얼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김형근, 2007: 193). 한국전쟁

전사자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고, 6·25전쟁 및 민족의 국난 극복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규모가 크고 기념내용이 다양하여 여러 개의 부속 메모리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6·25전쟁조형물'과 '형제의 상'을 설치하여 6·25전쟁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포로수용소였던 곳에 조성된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는 포로수용소 유적을 활용하여 당시의 상황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전쟁과 관련된 체험 및 전시기능을 강조하였으며, '홍남철수작전기념탑' 등 기념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유엔기념공원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11개국의 유엔군 전사자를 포함한 2,300명의 유해가 안장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로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om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 CUNMCK)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추모공원이며, 묘지 이외에도 추모관 및 위령탑이 있으며, 2006년에는 추모명비(追慕銘碑)를 건립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기념공간은 기념내용에 있어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공을 기리고, 6·25전쟁의 경험 및 교육을 통한 호국정신을 고양하는데 초점이 두어졌으며, 특히 전적지에 위치한 기념공간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포로수용소의 장소성을 나타내고, 양구전쟁기념관이나 유엔기념공원의 추모명비에서는 현대적인 전쟁메모리얼의 주요한 관심사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쟁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에 있는 한국전쟁 메모리얼이 개인의 희생을 추모하고, 참전 병사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하는 것을 기본적인 설계개념으로 하여, 미국사회에서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쟁을 기억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한국전쟁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상석, 2010: 23)과 달리, 한국에서는 기념공간이 장소성이 있는 곳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적지에 대한 설명과 전쟁의 경험을 강조하고, 6·25전쟁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념전쟁인 동시에 동족상잔의 전쟁으로서 인식하고, 애국적이며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표방하고 있어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 2. 공간적 특성

연구대상이 되는 전쟁기념공간은 6·25전쟁 중 전투가 벌여졌던 산에 위치한 전적지나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및 유엔기념공원 같이 6·25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기념성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경건함과 엄숙함을 주기 위한 전통적인 추모공간에 대한 관념적 의식에 반영되어 계단식으로 단(壇)을 주고 공간의 위계를 부여하며, 축적인 구성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그림 1e 참조)은 자유수호의 탑-아외무기전시장, 백마고지전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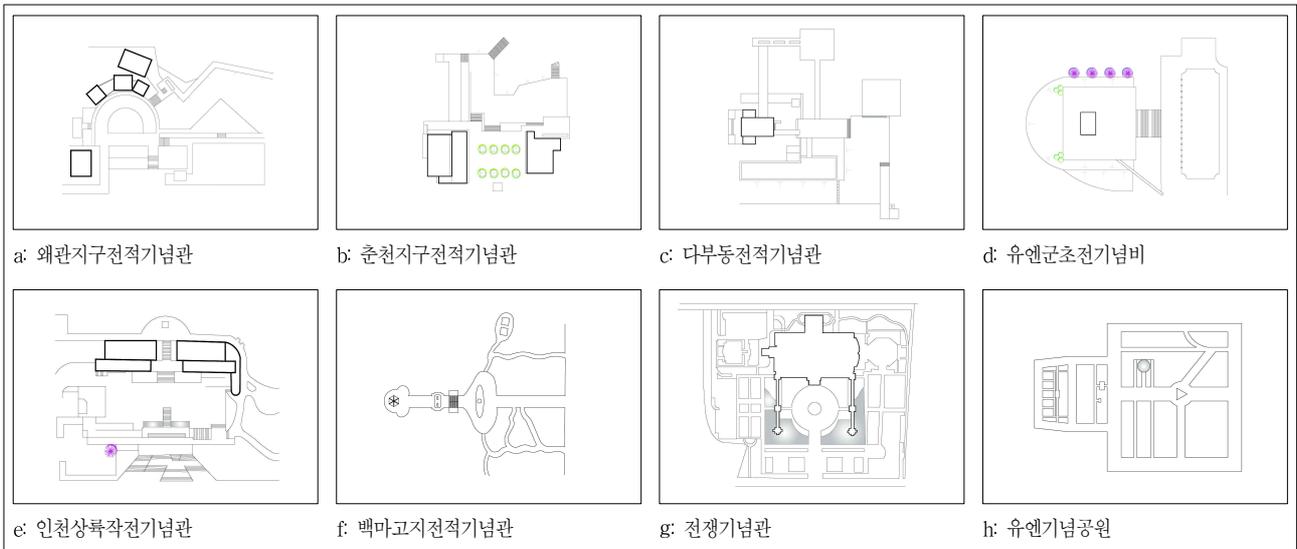


그림 1. 6·25전쟁 기념공간의 현황도면  
 자료: 필자 작성

기념관(그림 1f 참조)은 백마고지위령비-전적비-전통정자, 유엔군초전기념비(그림 1d 참조) 등에서는 기념비와 동상-참전국기, 다부동 전적기념관(그림 1c 참조)은 전적관-무명용사묘지-구국용사충혼비 등으로 강한 축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왜관 지구전적기념관(그림 1a 참조), 춘천지구전적기념관(그림 1b 참조)에서도 다소 약하지만 비슷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특히 백마고지전적기념관은 회고, 기념, 다짐의 장으로 공간구분을 하여 방문객의 시간적 흐름에 의한 경험을 강조하였으며, 유엔군초전기념비는 묘지를 본 뜬 형태로 구성되어 특징적이었다. 이와 달리, 평지에 조성된 양구전쟁기념관은 건물 위주의 기념관이지만 축적인 구성은 배제하고 일련의 시나리오에 따라 구성된 공간속에서 방문객은 이동에 따른 연속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한편, 기념공간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기능적인 공간구성을 시도하면서 부지의 축을 강조하였다. 부지 규모가 가장 큰 유엔기념공원은 전체적으로 축을 이루면서 상징구역, 주요역, 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되는데(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 공원시설안내 <http://www.unmck.or.kr/kor/park/unpark1.php>), 제일 높은 곳에는 터키·그리스·뉴질랜드·필리핀 등 국가기념비와 21개 참전국기·태극기·유엔기가 계양된 상징구역이 위치하고, 여기로부터 대부분의 유해가 안장된 주요역, 유엔군 위령탑 및 무명용사의 길을 연결하는 직선로를 포함하는 녹지지역으로 경사를 이루며 축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쟁기념관도 사각형의 넓은 부지에 경건함을 주기 위해 정면 축을 중심으로 엄격한 질서와 균형비례를 갖추고 있는 모더니즘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문-6·25상징조형물-평화의 광장-기념관전시실로 이어지는 축적인 구성은 중심으로 좌우에 전사자명비를 기록한 회랑(回廊)이 대칭으로 연못과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형제의 상’ 및 ‘6·25상징조형물’ 등 부속되는

메모리얼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부지 규모가 크고 경사가 많은 자연지형에 입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포로수용소지역, 체험관광지역, 전시지역 등의 기능적 공간 구성을 하고, 일부 주진입로-포로수용소유적관, 출구-분수광장조형물 등에서 부분적으로 축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만남의존·프리쇼존·한국전쟁존·포로수용소존 등으로 공간속에서 연속적 체험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이 베트남전쟁과 서로 비교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전쟁 메모리얼이 공원이나 광장의 제한된 부지에 세계2차대전 및 베트남전쟁 메모리얼과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 메모리얼의 장소성이 낮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적 디테일이나 조각을 도입하여 부족한 기념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6·25전쟁 기념공간은 부지의 입지여건과 전통적 공간인식에 따른 공간적 위계를 중시하고, 기념공간에서 요구되는 추모감과 엄숙함을 얻기 위해 축적인 구성을 하였으며, 중심축 상단에 기념탑이나 전시관과 같은 상징적 요소를 위치시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 3. 도입요소

6·25전쟁 기념공간에는 희생자 추모를 위한 추모비, 전승을 기념하는 기념탑, 기념전시관, 야외무기전시장, 참전국기 등이 주로 도입되었다. 흰색 화강석을 주재료로 한 추모비와 기념탑은 추모비, 위령비, 충혼비, 전공비, 전적비, 자유수호탑, 기념비, 기념탑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되었고, 유엔군초전기념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백마고지전적기념관, 미국군참전기념비, 유엔기념공원에서는 기념공간의 중심적인 위치에 세워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승을 기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군참전기

념비의 추모비, 백마고지전적기념관의 기념탑·위령비·전적비,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자유수호탑과 같이 기념비나 기념탑의 형태를 취한 것이 있는 반면, 유엔군초전기념비(그림 2e 참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자유수호의 탑(그림 2f 참조), 춘천지구전적비,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전승기념물, 전쟁기념관의 형제의상(그림 2n 참조) 등에서는 영웅적인 병사 조각상을 주요한 표현의 매체로 활용하였다.

또한 왜관지구전적기념관(그림 2b 참조), 춘천지구전적기념관, 다부동전적기념관(그림 2d 참조),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철의3각전적기념관(그림 2i 참조), 백마고지전적기념관, 양구전쟁기념관 등 6·25전쟁 당시 뛰어난 전공을 세웠던 장소에는 전쟁의 경험을 설명하고 전사를 위한 기념전시관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기념전시관을 전적지에 세움으로서 방문객이 군인들의 영웅적인 전투모습과 성과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호국정신을 고양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야외무기 전시를 통하여 사실적인 긴장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처럼 기념전시관이나 야외무기전시장과 같은 도입요소는 미국에 있는 한국전쟁 메모리얼에는 없으나 한국에서는 호국정신 및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공간의 중요한 요소로 도입되었다.

아울러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헌신과 한국과의 혈맹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분 기념공간에서 참전국가의 국기, 유엔기, 태극기가 주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유엔군이 참전한 전적지인 유엔군초전기념비,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전쟁기념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왜관지구전적기념관(그림 2b 참조), 다부동전적기념관(그림 2d 참조), 그리고 유엔기념공원에서는 유엔군 참전국기를 기념공간의 중심축과 직각으로 배치하여 공간구성의 주요한 요소로 활용하였다. 미국에서 미군이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전했다는 전쟁참가의 명분 및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엔군 참전국기를 설치하였으나, 한국에서는 6·25전쟁이 북한군의 남침에 대응하여 한국과 유엔군이 참전하여 함께 싸운 전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기념벽은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전쟁기념관의 흰색 화강석 부조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흰색 화강석 아치 및 부조(그림 2g 참조)에서 영웅적인 전투장면과 인천상륙작전을 모티브로 하는 화강석 부조가 세워졌고, 6·25상징조형물의 석벽에서는 우리 민족의 삶터인 한반도를 뜻하는 선사시대 바위그림을 재구성하여 민족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모습을 새기고 있다. 또한 미국군참전기념비에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나타내는 4개의 검은색 화강석 부조에 전투모습을 새겨 넣었으며, 유엔기념공원의 입구에는 검은색 기념벽(그림 2w 참조)을 설치하여 추모공원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양구전쟁기념관에서는 콘크리트벽(그림 2r 참조)을 이용하여 방문객의 연속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유엔기념공원의 추모명비는 현대적인 메모리얼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념벽을 세우고 전몰용사의 이름을 새겼다.

수경시설의 사용은 많지는 않았으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수벽과 폰드, 전쟁기념관의 회랑과 대규모 연못, 유엔기념공원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제일 젊은 호주병사의 이름이 본 따서 만든 죽음과 삶의 경계를 의미하는 도온트 수로(daunt waterway), 추모명비의 원형 수반인 '회고의 못(reflecting pool)'에서 물을 상징적 매체로 사용하였다. 이밖에 양구전쟁기념관에는 6·25전쟁 때 치열한 격전이 벌어진 도솔산·피의능선·편지불 등 양구지역의 9개 전투를 상징하는 9개의 콘크리트 기둥(그림 2q 참조)이 진입공간에 세워졌고, 백마고지전적기념관에는 제일 높은 상부에 상승각(常勝閣)과 종을 설치(그림 2k 참조)하여 전공을 기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공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와 기념탑, 전쟁의 경험 및 교육을 통해 호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기념전시관 및 야외무기전시장, 참전국가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국기가 주요한 요소로 도입되었다. 대부분 기념공간이 전적지에 세워져 장소적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 도입요소가 단순하고 틀에 박힌 전시를 통하여 전승과 호국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 4. 조각 및 건축물의 특성

조각은 오래전부터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6·25전쟁 기념공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었다. 조각의 유형은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전승기념물·유엔군초전기념비·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자유수호의탑·왜관지구전적기념관 전적비·춘천지구전적비 등 병사전투상, 미국군참전기념비와 같은 추상형 조형물, 다부동전적기념관·형제의상·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 흥남철수작전기념탑 등 복합상징조형물, 양구전쟁기념관·6·25상징조형물·수호명비 등의 건축적 메모리얼로 구분되었다.

병사전투상에서는 병사의 영웅적인 전투장면을 모티브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전승기념물(그림 2t 참조), 유엔군초전기념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자유수호의탑(그림 2h 참조),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전적비, 춘천지구전적비, 양구전쟁기념관에서 병사전투상을 들 수 있으며, 기념탑이나 기념비의 기능과 복합되어 있다. 이러한 영웅적인 전투장면을 묘사한 조각은 근대적 메모리얼에서 애국주의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 방법으로 6·25전쟁 기념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있는 한국전쟁 메모리얼에서도 일부 전투장면을 묘사한 조각이 사용되었지만, 겨울 추위에 고전하는 모습, 부상당한 병사상, 실종된 병사상 등 다양한 사실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어(이상석, 2010: 22), 한국에서 전승을 기념하는 영웅적인 병사의 모습만을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예외적으로 미국군참전기념비에는 추상적인 형태의 참전기념비(그림 2a 참조)를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원형의 화강석 포장 기단에 가운데 참전기념비를 세우고 참전부대를 나타내

표 2. 6·25전쟁 기념공간의 특성

명칭	위치	면적 (m <sup>2</sup> )	조성 연도	기념내용	공간특성	도입요소
미국군참전기념비	경기 파주	380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전기념</li> <li>전사자 추모</li> <li>미군 명예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지, 원형 기념물</li> <li>바깥원에 미국주기 배치</li> <li>내부 미국군참전기념비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형 흰색화강석 기단, 미국 50개주, 미국군 참전기념비, 검은색 삼각형 화강암 부조</li> </ul>
왜관지구전적기념관	경북 칠곡	14,638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자 추모 및 전공</li> <li>전쟁설명 및 전시</li> <li>호국정신 고양</li> <li>참전국 명예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형 전적지</li> <li>참전국기→마체형광장→기념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적기념관, 흰색화강석전적비, 6·25참전용사 추혼비, 무기전시, 무공수훈자전공비, 16개참전국기</li> </ul>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강원 춘천	32,373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자 추모 및 전공</li> <li>전쟁설명 및 전시</li> <li>호국정신 고양</li> <li>참전국 명예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형 전적지</li> <li>전적기념관→광장→자유회관</li> <li>춘천지구 전적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적기념관, 춘천지구전적비, 전적기념관, 자유회관, 야외무기전시장, 16개참전국기</li> </ul>
다부동전적기념관	경북 칠곡	24,268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자 추모 및 전공</li> <li>전쟁설명 및 전시</li> <li>호국정신 고양</li> <li>참전국 명예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형 전적지, 장소성</li> <li>기념관 중심으로 축적 구성</li> <li>다양한 비석 주변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심축 상단에 탱크모양의 전적기념관 영웅적인 전투상, 구국용사추혼비, 구국관, 야외무기전시장, 16개참전국기, 조처훈의 희생자 추모시</li> </ul>
유엔군초전기념비	경기 오산	20,451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쟁설명</li> <li>전사자 추모 및 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형 전적지, 장소성</li> <li>전통적인 묘지 구조</li> <li>중심축 기념비-참전국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개참전국기+유엔기+태극기</li> <li>전투조각상+3개의 기둥</li> </ul>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천 연수	34,000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상륙작전기념</li> <li>참전국과 유대강화</li> <li>전쟁설명 및 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경사형 전적지</li> <li>산→자유수호의탑→영상관·전시관→야외무기전시장 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웅적 전투장면 석재아치부조</li> <li>폭포, 전시실, 영상실, 야외무기전시장, 계단</li> <li>자유수호의탑+석재부조벽, 상륙작전조각</li> </ul>
철의3각전적기념관	강원 철원	8,250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기념</li> <li>전쟁설명 및 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지 전적지</li> <li>단순한 축적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념관, 야외무기전시장</li> </ul>
백마고지전적기념관	강원 철원	6,600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자 추모 및 전공</li> <li>전쟁설명 및 전시</li> <li>호국정신 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형 전적지</li> <li>백마고지위령비→전적기념관→전적비→전통정자 축적 구성</li> <li>회고→기념→다짐의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무암 백마고지위령비, 백마고지전투기념관, 화강암 백마고지전적비, 전통정자(상승자)</li> </ul>
전쟁기념관	서울 용산	25,672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자 추모</li> <li>전쟁설명 및 전시</li> <li>호국정신 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적 전쟁종합박물관</li> <li>정문→6·25상징조형물→평화의 광장→기념관전시실</li> <li>축적이며 대칭적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자명비 회랑이 대칭으로 둘러싸고 있음+연못</li> <li>광장벽면의 부조, 국기게양, 야외무기전시장, 평화의 시계탑, 광개토왕릉비</li> </ul>
	형제의 상	직경 18m 높이 11m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테올로기</li> <li>전쟁의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 전시공간이 있는 돔형 구조물 조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포용하는 형제의 상</li> <li>내부-모자이크 벽화, 스테인드 글라스</li> </ul>
	6·25 상징 조형물	4,000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생자 추모</li> <li>참전국 명예고양</li> <li>호국정신 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월과 태극문양 돌 그릇</li> <li>중심에 6·25탑과 호국군상</li> <li>테라스 계단, 참전국기념기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25탑, 호국군상, 참전국 기념기둥, 원형 돌그릇, 석벽</li> </ul>
양구전쟁기념관	강원 양구	3,49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자 추모</li> <li>전쟁설명 및 전시</li> <li>상징적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 위에 놓인 구조물로서 시나리오에 위한 공간 구성</li> <li>환영→무념→관람→이해→추념→사색의 공간으로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개 전투 상징하는 기둥 및 내부공간</li> <li>전시실, 병사의 조각상, 폰드, 전투중인 병사상</li> <li>야외무기전시장</li> </ul>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강원 춘천	99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자 추모 및 전공</li> <li>사실적 전투장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지 기념공원</li> <li>결의대, 자유수호탑, 포병사격조각 등 파노라미한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수호탑, 결의대, 전투장면 사실적 묘사</li> <li>포병사격 및 포탄을 운반하는 민간인의 모습</li> <li>기념식재지, 국기게양대</li> </ul>
하동군호국공원	경남 하동	2,100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자 추모 및 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형 배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추모비, 참전전우기념비, 반원형 연못, 야외무기전시</li> </ul>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	경남 거제	64,224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쟁설명 및 전시</li> <li>장소적 기념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로수용소 유적 활용 배치</li> <li>만남의존·프리쇼존·한국전쟁존·포로수용소존</li> <li>주진입로→포로수용소유적관, 출구→분수광장 축적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존건물 일부, 포로들의 생활상, 막사, 사진 의복 등 생생한 자료와 유적관, 국군철모조각, 흥남처철수작전기념탑, 탱크전시장</li> </ul>
(제한)유엔기념공원	부산 남구	145,576	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유일 유엔군묘지</li> <li>UN군 전몰장병추모</li> <li>참전국 명예 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li> <li>축적적인 구성하고 곳곳에 기념물 위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군 전몰장병 묘역, 검은기념벽(묘역입구)</li> <li>위령탑, 영연방위령탑, 유엔군위령탑(흰색, 기념벽), 추모관, 도넛 수로</li> <li>추모관과 전통성이 있는 정문</li> </ul>
	추모 명비	2,874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생자 추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형 폰드와 유리벽, 추모의 벽에 의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형 폰드</li> <li>유리벽과 추모명비, 21개의 분수, 철도, 연꽃</li> </ul>

는 전시관으로 활용하였다. 더욱 상징적으로는 1994년 전쟁기념관 개관 당시 세워진 '형제의 상'(그림 2n 참조)을 들 수 있다. 화강암 조각으로 쌓아올린 직경 18m 돛 위에 서 있는 높이 11m짜리 대형 조형물로서, 한국전쟁 당시 국군 장교인 형과 인민군 병사인 동생이 전장에서 극적으로 상봉했던 실화를 토대로 만들었다. 전쟁기념관 개관 당시 갈라진 돛 위에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 껴안고 있는 조형물이 이념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도 있었으나, 남북의 분단과 대립을 화합과 통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형제에게 총을 겨누는 사실도 모른 채 싸워야 했던 전쟁의 아픔을 표현하였으며, 인민군인 동생은 금방 쓰러질 듯 위태롭게 긴장한 국군인 형의 품에 안겨 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은연 중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각과는 달리 기념공간 속의 부속메모리얼로서 존재하는 건축적 메모리얼로서 양구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의 '6·25전쟁조형물', 그리고 유엔기념공원의 '수호명비'를 들 수 있다. 2000년 개관한 양구전쟁기념관(그림 2q 참조)은 6·25전쟁 때 치열한 격전을 벌인 양구 지역의 9개 전투의 전쟁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건물보다는 구조물이나 오브제로서 공간의 연속적 경험을 증시하고 전투의 이미지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3년 전쟁기념관에 조성된 '6·25전쟁조형물'은 여러 개의 조형물이 복합된 기념공간으로서 한민족의 역사,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호국정신, 참전국 전사상자 추모 및 명예고양, 민족통일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세워졌으며, 공간형태는 원형의 돌수반 및 지상부의 청동검 조각과 지하로 내려가는 타원형 침상공간(沈床空間)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o 참조). 6·25 탑은 청동검과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것으로서 청동검은 유구한 역사와 상부정신을 표현하고, 생명수는 한민족의 화평과 번영을 상징하며, 6·25탑을 받치는 돌그릇은 기단부로 겨레의 정신과 민족통일의 염원을 닦아가는 그릇을 의미한다. 또한 호국군상(그림 2p 참조)은 전쟁을 극복했던 각계각층의 38인을 조각하여 6·25전쟁의 고난과 상처를 표현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상징하며, 석벽은 우리 민족의 삶터인 한반도를 뜻하며 선사시대 바위그림을 재구성하여 민족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이밖에 21개 참전국의 상징물을 조각하여 세움으로 참전국 전사상자를 추모하고 참전국가의 명예를 고양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만들어진 유엔기념공원에 있는 추모명비는 양구전쟁기념관과 마찬가지로 건축가가 주도하여 만든 건축적 기념공간이다. 6·25전쟁에 참전해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 전몰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는데,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추모명비'(그림 2x 참조)에는 한국전쟁에서 숨겨거나 실종된 17개국 40,895명의 모든 전몰용사의 이름을 국가별, 개인별 알파벳 순서로 새겨 넣어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묘지의 장소성에 걸 맞는 시도를 하였다. 여기에는 우주를 뜻하는 원형으로 만든 회고의 못이 있고,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벽이 인접해 서 있으며, 회고의 못에는 하늘,

추모명비 그리고 방문객의 모습이 반영되어 회고 및 추모감이 들도록 하였다(임채진, 2007: 107).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기념공원에 있는 추모명비는 다른 6·25전쟁 기념공간과 달리 유엔군 묘지로서 특성을 고려하여 희생자 추모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조각의 대부분은 영웅적인 전투상으로 근대적 조각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장면과 같은 리얼리티를 표현한 조각이나 추상적 형태를 갖는 것도 일부 있었다. 또한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 상징조형물을 통하여 한국전쟁을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최근 만들어진 양구전쟁기념관, 유엔기념공원의 '추모명비', 그리고 전쟁기념관의 '6·25전쟁조형물' 등은 조각에만 의지하는 근대적이고 관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공간설계를 통하여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현대적 메모리얼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새로운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 5. 기념문화의 고찰

6·25전쟁 기념공간은 기념내용에 있어서 전사자를 추모하거나 전공을 기리고, 6·25전쟁의 경험 및 교육을 통하여 호국정신을 고양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대부분 비석이나 탑, 조각상, 기념관 형태로 만들어져 단순하였으며, 특히 전직지에 위치한 기념공간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직지의 지형적 특성과 전통적인 공간인식에 따라 공간의 축을 중시하고 공간별로 단을 주어 위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6·25전쟁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문화를 애국주의 및 이데올로기, 관습적인 기념공간에 대한 인식, 폐쇄적인 기념공간 설계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1) 애국주의 및 이데올로기의 강조

6·25전쟁을 한국군과 유엔군이 연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념전쟁인 동시에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기념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전쟁의 승리감을 강조하였다. 미국에 있는 한국전쟁 메모리얼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현재까지 대립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반공안보논리에 입각한 6·25전쟁에 대한 기억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6·25전쟁 기념공간이 애국주의 및 이데올로기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6·25전쟁 기념공간에 도입된 조각이나 기념전시관의 전시내용을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다. 전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병사들의 영웅적 행동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어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반공 및 안보정신을 강조하는 이념성을 나타내고 있어 통시적 관점에서 근대적 메모리얼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 이후에 미국 워싱턴 D.C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이나 독일 베를린 '유럽에서 학살된 유대인

메모리얼(Memorial for the murdered Jews of Europe)처럼 세계적으로 메모리얼 양식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양식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히 영웅주의 및 국가적 애국심을 억지로 불러일으키려고 집착한다면, 시의성을 잃은 기념비나 기념탑, 조각의 진부함에 실증을 느낀 국민들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전쟁 6·25전쟁도 잊고 전쟁에 대한 거리감도 크게 느낄 것이다.

### 2) 관습적인 기념공간에 대한 인식

전통적 의례와 규범을 반영하여 공간위계 및 기능을 중시한 전쟁기념공간이 조성되었으며, 여기에 관습적으로 기념탑, 전적비, 추모비, 기념조각 등 단순한 모뉴먼트를 세웠다. 기념전시관이나 야외무기전시장에서는 틀에 박힌 전시로 안보 및 호국정신을 강조하여 방문객의 자유로운 사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매체인 조경디테일을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요소로만 사용하였다. 또한 기념공간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제시된 직접적 형식규범은 없으나,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공을 설명하기 위해 전적기념관을 건립하며, 영웅적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한 기념탑을 세우는 목적으로 규범화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전쟁기념공간의 속성상 전통적인 기념공간에 대한 인식이나 정치사회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나, 현대적 메모리얼 설계에서 관습적인 조성방식을 벗어나 희생자 추모 및 정체성의 구현 등 근본적인 기념내용에 대한 설계가의 고민이 늘어나고, 메모리얼 설계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점점 약화되고 그 의미와 상징성이 중시되는 국제적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 3) 패쇄적인 기념공간 설계과정

전쟁기념공간은 다양한 설계개념을 담을 수 있으며, 설계가가 어떻게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기념성을 구현하는가에 의해 달라진다. 국내에 있는 수 많은 현충시설에서 분석가치가 높은 기념공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구전쟁기념관이나 유엔기념공원의 추모명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작품성이 있는 것을 찾기 어려웠다.

게다가 최근 지역별로 조성되고 있는 참전용사기념공원이나 기념탑 등에서도 지역에서 참전한 용사들의 전공을 기리고 국가적 애국심을 강조하다보니 과거와 같은 기념공간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념공간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념공간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정치적, 역사적, 미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대적 메모리얼에서 중요시되는 희생자 추모나 전쟁에 대한 은유적 표현과 같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기념공간 설계에 있어 설계공모를 통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개방성을 높여 훌륭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싱턴 D.C. 베트남전쟁 메모리얼 및 한국전쟁 메모리얼 등 작품성 있는 메모리얼은 대부

분 경쟁설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쟁설계는 모든 기념공간 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며, 우리의 기념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적 정체성을 고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 기념공간을 대상으로 기념내용, 공간적 특성, 도입요소, 조각 및 건축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념문화를 고찰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념내용에 있어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공을 기리며, 6·25전쟁의 경험 및 교육을 통하여 호국정신을 고양하는데 초점이 두어졌으며, 특히 전적지에 위치한 기념공간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부지의 입지여건과 전통적 공간인식에 따른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였으며, 기념공간에서 요구되는 엄숙함을 얻기 위해 축적인 구성을 하고, 추모감과 전승감을 얻기 위해 중심축 상단에 기념탑이나 전시관과 같은 상징적 요소를 위치시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3.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공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와 기념탑, 전쟁의 경험 및 교육을 통해 호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기념전시관 및 야외무기전시장, 그리고 참전국가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국기가 주요한 요소로 도입되었다.

4. 영웅적인 전투장면을 묘사한 근대적 조각이 많았으나, 양구전쟁기념관 및 유엔기념공원의 추모명비에서는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현대적 메모리얼의 경향을 보여 주었다.

5. 기념문화에 있어서도 애국주의 및 이데올로기가 강조되고 기념공간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으며, 일부의 설계가 및 조각가만 제한적으로 기념공간의 설계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 있는 한국전쟁 메모리얼은 개인의 희생을 추모하고, 참전 병사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을 기본적인 설계개념으로 하여, 미국사회에서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쟁을 기억해 내게 하였던 반면, 6·25전쟁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서 애국적이고 이데올리기적인 관점을 표방하고 있어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적 디테일이나 조각을 도입하여 부족한 기념성을 보완하였으나, 한국에 있는 6·25전쟁 기념공간에서는 부지의 입지여건과 전통적 공간인식에 따른 공간적 위계를 중시하고, 전적지에 대한 설명과 전쟁의 경험을 강조하였으며, 기념공간에서 요구되는 엄숙함을 얻기 위해 축적인 구성을 하고, 추모감을 얻기 위해 중심축 상단에 기념탑이나 전시관과 같은 상징적 요소를 위치시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최근 만들어진 양구전쟁기념관 및 유엔기념공원의 ‘추모명비’는 관습적인 태도에서 벗

어나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현대적 메모리얼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새로운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 있는 6·25전쟁 기념공간을 대상으로 기념내용, 공간특성, 도입요소, 조각 및 건축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여기에 나타난 기념문화를 고찰하였다. 기념공간의 조성시기가 다양하고 규모의 차이가 커서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념공간에 나타나는 미니멀리즘, 해체주의, 탈근대주의 등의 설계양식론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 주 1) 메모리얼(memorial)은 서구적 개념으로서 기념물, 추모공간(공원), 기념공간(공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외부공간이 조성된 메모리얼을 대상으로 하므로 의미상 기념물은 적합하지 않으며, 기념공원 역시 기념공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를 '기념공간'으로 호칭하였다.
- 주 2) 6·25전쟁을 미국 등 외국에서 영문으로는 'Korean War'로 불리며, 이를 번역한 '한국전쟁'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전쟁'이 '6·25전쟁'에 비해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인식될 수 있으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쟁 주체가 불명확하고, 한국에서 벌어진 다른 전쟁과 구별이 용이치 않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국방부에서 간행하는 각종 공식간행물에서도 '6·25전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다.

## 인용문헌

1. 국방연구소(1996). 한국전쟁피해통계집.
2. 김정윤(2004). 대만 치치 지진 메모리얼. 한국조경학회지. 32(5): 129-136.
3. 김형근(2007).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한국언론정보학보 40: 192-220.
4. 유희상, 송영환(2008. 6). 호국보훈의 달 기획특집(전적비는 외롭다). 국방저널. 414: 38-45.
5. 이상석(2001).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경 디테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9(5): 71-83.
6. 이상석(2005). 경관, 조형 & 디자인. 경기: 도서출판조경.
7. 이상석(2009). USS 애리조나 메모리얼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환경과조경. 254: 142-151.
8. 이상석(2010). 한국전쟁 메모리얼의 설계요소에 나타난 기념성. 한국조경학회지. 38(1): 12-24.
9. 임채진(2007). 재한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 UNMCK 대한건축학회발행 건축. 51(2): 107-110.
10. Jorgensen, Karsten(1998) Semiotics in Landscape Design. Landscape Review. 4(1): 39-47.
11. Potteiger, Matthew and Jamie Purinton(1998). Landscape Narra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2. The commission of fine arts(1946). War memorials. Landscape Architecture. 37: 17-19.
13. Yoshimura, Valerie Nao(1997). Ruin & Reunions, Planes & Cranes: National Identity and World War II Memorials in Franc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Kyoto and Tokyo: the 49th Annual Japan-America Student Conference 1-26.
14. Wasserman, Judith R.(1998). To trace the shifting sands: Community, Ritual, and the Memorial Landscape. Landscape Journal. 17: 42-61.
15. <http://narasarang.mpva.go.kr/hyunchung/mfis/facility.asp>
16. <http://www.unmck.or.kr/kor/park/unpark1.php>

원고접수: 2010년 4월 29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5월 24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